
		<h1>보 도 자 료</h1>		
		배포 일시	2018. 10. 15.(월) 총 6매(본문 2, 참고 4)	
담당 부서	항만투자협력과	담 당 자	• 과장 장기욱, 서기관 김건의, 주무관 고대호 • ☎ (044)200-5960, 5963, 5964	
보 도 일 시		2018년 10월 1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15.(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해수부, 러시아와 극동지역 항만개발 협력 추진

- 러시아 슬라비얀카항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러시아 슬라비얀카항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10월 16일(화) 용산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용역개요) 2018. 9. ~ 2019. 9. / 4억 7천만 원 / (주)헤인이앤씨

슬라비얀카항은 한국·중국·러시아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인 연해주 남부지역에 위치한 항만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북방물류는 물론, 삼국의 국제물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항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항만개발 타당성조사는 지난 4월 러시아정부의 요청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용역업체 선정 등을 거쳐 착수보고회를 갖게 되었다.

보고회에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항만·물류기업, 금융기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타당성조사의 추진방향과 슬라비얀카항 개발계획 등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는다. 제시되는 주요 의견들은 러시아 정부 및 관련 기업과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향후 용역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우리 기업들은 유라시아대륙의 교통·물류 거점이 될 극동 항만 개발에 관심을 보였으나, 러시아 정세와 경제 등의 위험요소로 인해 투자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슬라비안카항 개발사업에는 항만 개발권과 부지 소유권을 소유한 러시아 유망기업 '베르쿠트(Berkut)'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투자 위험요소를 줄이고 우리 기업들의 관심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대엔지니어링과 베르쿠트 간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2017. 10.)

해양수산부는 2019년 9월까지 슬라비안카항 개발사업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관심기업들이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개발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욱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이 신북방정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우리 기업들의 극동지역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 개발부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슬라비안카항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착수보고회 개요>

- 일시/장소: 10. 16.(화) 15:30 / 서울용산역 회의실
- 참석대상: 우리부, 북방경제위원회, 해운항만 물류기업, 금융기업 등 약 40명
- 주요내용: 타당성조사 추진방향, 슬라비안카항 개발 계획 등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1

러시아 극동지역(슬라비안카항) 항만개발 협력사업

□ 추진 배경

-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의 관문인 극동항만에 대한 관심 고조
 - 對-러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열악한 항만시설로 인해 물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물류거점 확보 필요성 제기
 - * 한-러 간 물동량 : ('06) 1,859만톤 → ('16) 5,897만톤(연평균 12.2%↑)
- 제3차 동방경제포럼('17.9)에서 「9-Bridges* 전략」 발표에 따라 극동항만 개발에 대한 한-러 간 협력 강화 계기 마련
 - * 항만, 북극항로, 수산,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농업 등 9개 분야

□ 추진 내용

- 「한·러 항만 현대화 및 개발에 관한 MOU」 체결('14.1)
 - * 한국 해양수산부 - 러시아 교통부
-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기본계획” 수립용역 수행('14.4~'15.12)
- 슬라비안카 개발사업 관련 한-러 5개 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17.10)
 - * 러 BERKUT, 현대엔지니어링, 장금상선, Sintez(자문), UNICO(물류)
- 슬라비안카항 타당성조사 지원요청('18.4, 극동개발부→해수부)

<슬라비안카 클러스터 조성사업 개요>

- (개요) 다목적 터미널*(컨테이너, 목재 등 총 80.4ha), 수리조선소(100톤급 이하), 국제환적항(최대 800만톤 규모 벌크부두), Nerpa 어항, LPG 터미널 등 건설
 - * 현대엔지니어링은 다목적 터미널 1단계(40.4ha) 사업 참여 예정
- (발주처) 러시아 BERKUT Group

- 슬라비안카항 항만개발 기본계획 검토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18.9)
 - * (용역개요) 2018.9.17. ~ 2019.9.16. / 470백만원 / (주)헤이이엔씨

□ 향후계획

- 용역 착수보고('18.10.16.)
- 현지 실무회의('18.11월)
- 타당성조사 완료('19.9월)

참고 2

슬라비안카항 관련 자료

□ 항만현황

- 슬라비안카항은 러시아 극동지역인 연해주의 남부지역에 위치한 항만으로, 선박수리소가 위치하고 북한, 중국 등 아태지역과 인접한 곳에 자리잡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음

* 부두는 총 15개 선석에 총 연장은 2,860m이며, 상업부두(목재, 일반화물, 컨테이너 취급), 여객부두, 관리부두, 선박수리부두 등으로 구성

□ 극동지역 주요 현황

✓ 일반현황

○ 극동지역



면적	621만(한반도 28배)
인구	625만명(러시아 인구 4.5%) ⇒ 인구밀도 매우 낮음
언어	러시아어
행정구역	9개 연방주로 구성 (연해주, 사할린주, 하바로프스크주, 캄차트카주 등)

✓ 경제현황

극동지역 교역 동향(최근 2년)



- 주요 수출품은 기계장비 / 수입품은 원유

주요 경제지표(연해주)

- 지역총생산(GRDP, 2016년) : 약 127억불
- 근로자 월평균 임금(2017년) : 약 645불
- 주요산업 : 철강업(금속가공), 전력산업, 기계제작, 목재 등

극동지역 주요 자원 매장량

- 주요 자원 : 철광석, 석탄, 원유
- 석유 : 141억 배럴(러시아 19%)
- 천연가스 : 10.2조m³(러시아 23%)
- 산림, 수력, 어족자원 매우 풍부

• 극동지역은 과거 10년 전부터 교역량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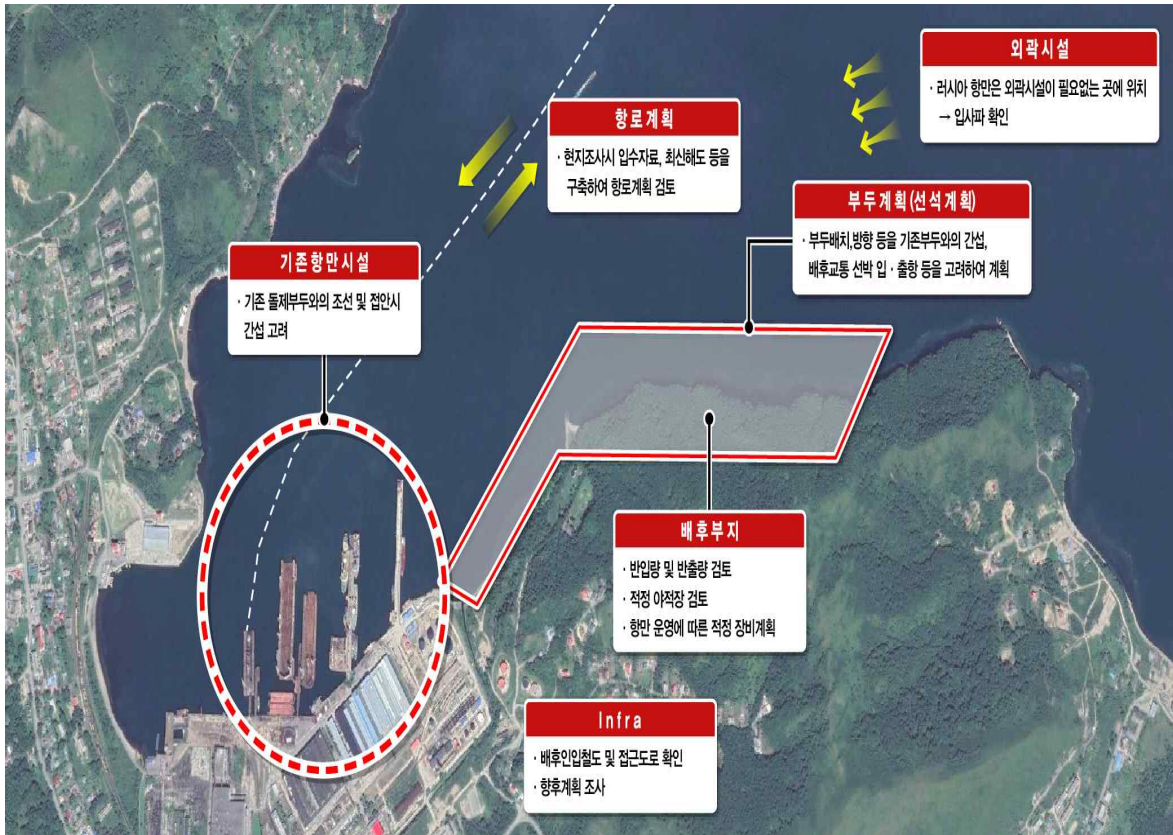
□ 위치도



○ 기존 항만



○ 개발 예정지



개발목표

- 러시아 슬라비안카 항만물류 클러스트 조성(4개 프로젝트) 중 항만터미널 개발 프로젝트로서 1단계 사업으로 컨테이너, 목재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다목적 터미널을 개발하고 2단계로 매립을 통해 Shipyard 및 fleet base를 개발

사업개요

단계별	주요 내용
1단계	- 매립 : 40.4ha - Container Complex : 연 250 TEU - Metal scrap Complex : 연 270k Ton - Timber Complex : 연 최대 600k Ton - Shed warehouse : 최대 10k Ton - Railway track : 1.9ha
2단계	- 매립 : 40ha - Shipyard : Slipway 27기, 육상건조장 - Por fleet base

조감도